

한국수소연합 일간 수소 이슈 브리핑

- '25.6.20. 한국수소연합 경영지원실 -

◇ 매일 언론보도 내용을 기준으로, 국내·외 수소에너지 및 수소경제와 관련한 주요 이슈를 요약 배포함

I. 국내

□ 정부

- **산업부, 하반기 수소차 보급·수소 수급 상황 점검**(‘25.6.19. 가스신문)
 - 산업부는 19일 '2025년 제2차 모빌리티용 수소 수급 협의체' 회의를 열어, 수소차와 충전소 보급 현황과 향후 계획을 논의함
 - 수소버스 보급 확대 등에 따라 올해 5월까지 수송용 수소 소비량이 전년 대비 약 70% 증가한 5,454톤을 기록했으며, 하반기 수소 보급 계획 기준으로 최대 수요가 1만 5천톤 전망에도 불구하고 공급능력은 1만 9천톤 수준으로 안정적인 수급 관리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됨

□ 산업계

- **네오오토, 현대차 차세대 수소차·EREV 핵심 감속기 부품 수주**(‘25.6.19. 뉴시스)
 - 모빌리티 부품 전문기업 네오오토는 현대차의 차세대 수소 전기차 부품 공급·EREV(주행거리 연장형 전기차)용 핵심 감속기 부품을 신규 수주했다고 밝힘
 - 이번에 공급되는 부품은 현대차의 차세대 수소전기차 NH2(넥쏘 2세대 모델)에 적용되며, 해당 부품들은 지난달 개발이 완료되어 올해 2분기부터 본격적인 양산에 돌입함
- **장인화 회장, 뉴욕서 글로벌 철강리더십 강조..."AI·수소환원제철로 도약"**(‘25.6.19. 아시아경제)
 - 포스코그룹은 글로벌 철강 전문 분석기관인 월드스틸다이내믹스(WSD)가 주최하며, 세계 주요 철강사 CEO와 관계자 500여명이 참석

하는 업계 최대급 행사인 '글로벌 철강 다이내믹스 포럼'에서 그룹의 글로벌 리더십 강화 전략을 공개함

- 장인화 회장은 이 자리에서 포스코는 인공지능(AI)을 기반으로 한 인텔리전트 팩토리와 수소환원제철 기술개발을 통해 초일류 미래 소재 기업으로 도약하겠다고 밝힘

○ **HD현대, '수소'로 움직이는 크루즈선 기술 개발 착수...유럽시장 노린다**
(‘25.6.19. 아시아투데이)

- HD현대는 최근 계열사인 HD한국조선해양과 HD유럽연구센터, HD하이드로젠, 노르웨이 선급(DNV), 독일 대표 크루즈 선사 투이 크루즈가 참여하는 '고체산화물연료전지(SOFC) 시스템의 크루즈선 적용을 위한 공동개발 프로젝트(JDP)'에 착수했다고 밝힘
- HD현대는 크루즈선에 적용 가능한 SOFC 기술을 개발하여, 친환경 규제가 엄격하고 상대적으로 크루즈 수요가 많은 유럽 시장을 공략할 방침임

□ 기관

○ **철도연, '부산국제철도기술산업전' 참가...친환경 수소열차 등 공개**
(‘25.6.18. 전자신문)

- 한국철도기술연구원은 18~21일 4일간 부산 벡스코에서 열리는 '2025 부산국제철도기술산업전'에 참가했다고 밝힘
- 이번 전시회에서 친환경 수소열차 축소 모형, 레일 온도 상승 저감을 위한 차열직물 올인원장치, 폐플라스틱과 제철 공정에서 발생하는 산업 부산물인 제강슬래그로 만든 재활용 소재를 활용한 친환경 침목 등 대표 연구성과를 선보임

○ **SK이노·HD현대오일뱅크·에쓰오일·LG화학 수소+탄소 연료 'e퓨얼' 상업화 위해 뭉쳤다**(‘25.6.18. 중소기업신문)

- 한국CCUS추진단은 SK이노베이션, HD현대오일뱅크, 에쓰오일(S-Oil), LG화학 등 6개 주요 수요기업이 참여하여 '차세대 CCU (이산화탄소 포집·활용) 기술고도화사업 수요기업협의체 발족식'을 개최함

- CCU 기술은 탄소중립과 산업 전환의 핵심 기술 중 하나로 이번 협의체를 통해 기업이 기술 기획 단계부터 참여해 기술 수요 제시, 실증, 정책 제안, 시장 확산 등 다양한 방식으로 협력함으로써 실효성과 상용화 가능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힘
- **창원시의회, 국내 1호 수소생산기지 활용 방안 모색**(‘25.6.19. 메트로신문)
 - 창원특례시의회 경제복지여성위원회는 18일 국내 최초로 구축된 성주동 수소생산기지 등을 방문해 지역 전략 산업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현장 의견을 청취함
 - 위원회는 성주동 수소생산기지에서 관계자에서 운영상 애로사항 등을 듣고, 앞으로 수소생산기지의 효율적 운영에 필요한 사항과 활용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눔
- **가스공-말聯 페트로나스, LNG·수소·재생에너지·CCS 전략적 협업**(‘25.6.19. 이투뉴스)
 - 한국가스공사는 18일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말레이시아 국영 에너지 기업 페트로나스와 ‘액화천연가스, 수소, 재생에너지, 탄소포집·저장 등 청정에너지 분야 협력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’을 체결함
 - 양사는 이번 협약을 통해 LNG 밸류체인, 탄소 포집·저장(CCS), 수소·신재생에너지 프로젝트 등 다양한 분야에서 실무자 협의체를 구성해 지속 가능한 협력체계를 구축해 나가기로 함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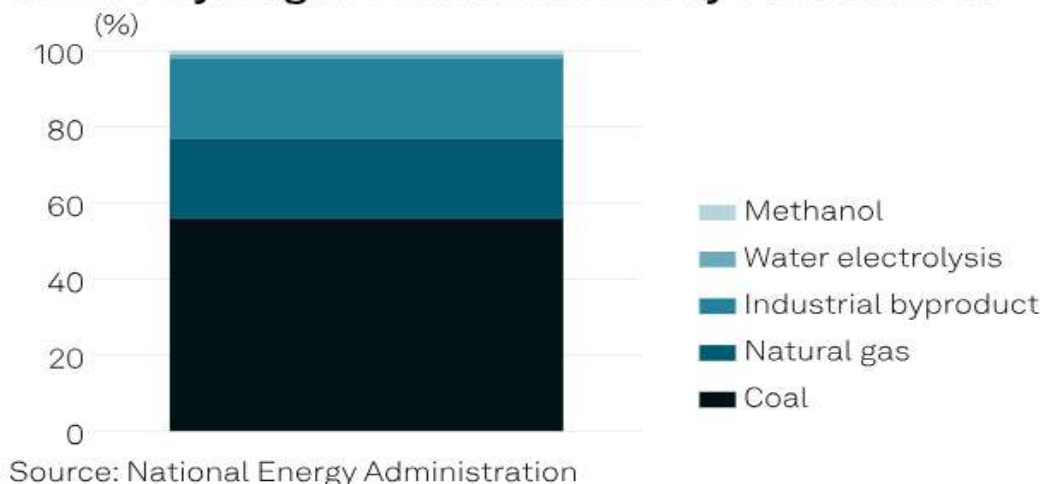
II. 해외

□ 글로벌 정책 동향

○ 중국, 국가 수소 파일럿 지침 발표 (S&P Global, 25.6.13)

- 중국 국가에너지국(NEA)은 수소산업의 상업화 기반과 핵심 기술 실증을 위해 '국가 수소 파일럿 지침'을 발표하고 11개 우선 분야를 선정함
- 생산부터 저장·운송, 활용까지 전 주기를 대상으로 하며, 개별 프로젝트와 지역 단위 통합 실증을 병행 추진함
- 모든 파일럿은 '28년 6월까지 실증 완료를 원칙으로 하고, 기술 혁신성과 상업성, 감축 효과를 기준으로 평가됨
- 재생에너지 기반 대형 전해조와 극한지 자급형 마이크로그리드* 실증을 핵심 과제로 삼고, 화석연료 설비에는 CCUS 기술을 적용함
- * 외부 전력망 없이 현지 재생에너지와 ESS로 전기 생산·수소 제조를 자체 해결하는 소규모 시스템
- 저장·운송은 장거리 파이프라인, 액화수소, 신기술 탱크 등 다양한 방식으로 실증하며 상업 확장을 고려함
- 각 성 정부와 국유기업은 최대 5개 개별, 2개 통합 파일럿을 제안할 수 있고, 우수 프로젝트가 우선 지원됨

China's Hydrogen Production Mix by Fuel Sources



□ 글로벌 산업 동향

○ 브라질, Neoenergia 녹색수소 공급기지 착공 (FuelCellsWorks, 25.6.13)

- Neoenergia*는 연방지구 타과칭가에 태양광 기반 녹색수소 생산·충전시설을 착공하고 R\$ 3천만(약 83억 원)을 투자해 '25년 10월 준공을 목표로 함
 - * 브라질 내 전력·재생에너지·수소 사업을 운영하는 대표 에너지 기업
- 이번 시설은 모기업 Iberdrola의 스페인 바르셀로나 충전소 모델을 참고해 버스·트럭·승용차에 공급 가능한 2중 압력(대형 350 bar, 승용 700 bar) 방식을 적용함
 - * 차량별 요구 압력에 맞춰 두 가지 압력으로 수소를 충전할 수 있는 방식
- 생산된 수소는 운송 부문의 탄소 배출 저감에 쓰이며, COP30을 앞두고 브라질의 녹색수소 실증·인력 양성 거점으로 활용될 예정임
- 브라질은 풍부한 재생에너지를 바탕으로 녹색수소 선도국으로 도약할 잠재력이 높고, Neoenergia는 수소 상용화 가속화를 위한 실증을 추진 중
- 해당 사업은 운송·중공업 등 전기화가 어려운 산업의 탄소 배출을 줄이는 수단으로 주목받고 있으며, 국내 기업도 공공 R&D 실증이나 복합충전소 구축 시 벤치마킹 할 수 있음

